

목포 7개 전통시장 현대화로 경쟁력 높인다

자유시장 남진 야시장 재개장...매주 금·토 오후 5시30분~10시 청호시장 모바일 디지털 시장 개장·동부시장 '시장 매니저' 도입 수산물 특화시장·중앙식료시장 시설 교체...다양한 콘텐츠 육성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목포시가 특색 있는 시장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난 17일 다시 문을 연 자유시장 남진야시장 재개장 행사에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목포 남진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목포시는 전통시장 운영 시간대를 야간으로 옮겨 관광명소인 삼학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대표 가수인 남진의 이름을 딴 '남진야시장'은 지난 2015년 처음 문을 열었다.

이날 개장 행사에는 목포 출신 가수 윤선영씨와 '농수로'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야시장 곳곳에 마련된 21개 판매대에서는 목포 먹거리인 낙지호랑과 초밥,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목포시는 남진야시장을 포함한 7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경쟁력 높이기 시작했다.

목포지역 주요 전통시장은 동부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종합수산물시장, 중앙식료시장, 향동시장, 신중앙시장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포 대표 전통시장인 청호시장에 대한 모바일 디지털 시장이 문을 열었다.

모바일 시장을 연 뒤 지난달 말까지 250여 건의 주문을 받았다.

5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특화시장 향동시장은 오래된 지붕을 교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동부시장은 전문 인력인 '시장 매니저'를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목포지역 7개 전통시장은 전기시설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장실 등 정비를 거쳐 현대화된 시설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지난달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과 함께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도활동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남진야시장이 많은 이들의 성원으로 정감 있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



지난 주말 다시 문을 연 목포시 산정동 '남진야시장'(자유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다. <목포시 제공>

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명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 모집 진도군, 이달말까지

진도군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배울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군은 지역 농업인 30명을 뽑아 교육한다. 교육 시간은 모두 60시간으로, 원예 공통 교육 과정을 수료한다. 농산물 유통과 온라인 마케팅, 현장 상담 등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은 지역 농업인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농업 경영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개발과 농촌지원팀(061-540-6123)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스마트 강소농 교육은 4월부터 농가 개별 현장 지도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시작으로 8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라며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신안 '3인3색' 신임 조합장 본격 업무

'최연소' 진완산 임자농협조합장
'최고령' 김일중 군산림조합장
'신인' 장래훈 남신안농협조합장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21일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4년이다.

신안지역에서는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 10곳 가운데 3곳이 신임 조합장을 맞았다.

이들 신임 조합장은 지역에서 '최연소' '최고령' 등의 이름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신안 최연소 조합장으로 당선된 진완산(48) 임자농협 조합장은 농업에서 24년간 근무한 경력을 살려 능가소득 높이기 위해 나선다.

진 조합장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 농산물 매입 단가 현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임자도 특산물인 대파 판로를 확대하고 신안 관

광상품과 연계해 농산물 판매 사업을 확장한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김일중(72) 신안군산림조합 조합장은 "조합원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조합"을 약속했다.

그는 조합의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신안군과 손잡고 국립자연휴양림 유지에 힘을 예정한다.

또 다른 '신인'인 장래훈(66) 남신안농협 조합장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안군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신안군과 농자재 공급과 영농비 보충지원을 강화하고 공동 방제단에 구성할 예정이다.

천일염 주요 생산자인 신의면 천일염 판매·유



진완산 조합장 김일중 조합장 장래훈 조합장

통구조를 개선하고 저장시설을 확충할 계획도 세웠다.

한편 도조농협(김경철), 북신안농협(양영모), 비금농협(최승영), 신안농협(조병범), 압해농협(천성태), 신안군수협(김길동), 목포무안신안축협(문만식) 등 신안지역 7곳 조합 조합장들도 연임에 성공하며 4년간 업무를 시작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봄 행사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 한창

완도대교·행사장 일원 도로 정비...시설물 청결 상태 집중 점검

완도군이 올해 봄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앞두고 차선을 도색하고 안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도로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주요 관문인 국도와 행사장 일원 도로를 정비한다.

우선 완도대교에서는 오래된 안전 시설물과 가로등을 손본다.

국도 13호선은 도색하고 방초 매트 교체하고, 녹색도와 계비문 담장을 보강한다. 국도 77호선 구역에서는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차선을 도색할 예정이다. 마라도 경주도로 쓰이는 군도 22호선도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완도군은 대표 봄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

제'(4월8일-5월7일)를 시작으로 '제62회 전남도민제전'(5월12일-15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5월24일-26일),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5월1일-31일) 등을 연다.

완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정 완도'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며 각종 도로 시설물의 청결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겨울 제설 작업 등으로 지저분해진 도로를 청소할 것"이라며 "완도군은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황칠나무' 전국 첫 지리적 표시 등록된다

해남황칠나무(사진)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를 통과해 산림청 공고로 앞두고 있다.

해남황칠나무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면 황칠나무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과 명칭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해남황칠나무가 등록되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에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황칠나무는 인삼 및 가시오가피와 같은 파나스(Panax) 계열의 상록활엽수로 나무 인삼이라고도 불리며 남해안과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비교우위 산림자원으로 산림 6차산업화의 선두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일원 지역에는 수령 200년 이상의 황칠나무 대규모 자생 군락지가 발견되는 등 오랜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까지 지역특화립 공모사업에 8년연속 선정돼 총 380ha에 이르는 황칠 특화림을 조성하는 등 황칠 산업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미래수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황칠을 지역 대표 브랜드를 가진 산림소득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연징산 '물맛이 치유의 숲' 개장...5월까지 무료 운영

치유센터·전망대·자연암 폭포
일광욕·명상·족욕 등 치유체험
무안군민·다자녀 가구 50% 할인

무안 연징산에 '물맛이 치유의 숲'이 조성돼 5월 말까지 무료 운영된다.

무안군은 지난 17일 무안을 성남리 물맛이 골에서 '무안 물맛이 치유의 숲'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무안 연징산 자락에 있는 물맛이 치유의 숲은 무안읍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총면적 125ha에 치유센터와 숲속 화장실, 치유숲길, 치유정원, 물 치유시설, 전망대, 자연암 폭포 등이 들어섰다.

국비 4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80억원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숲길 걷기와 바람욕, 일광욕, 명상 등 '힐링 숲 체험'과 족욕, 벽천, 자연암 폭포 등 물을 활용한 '수(水) 치유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숲속 요가와 사색 등 정선 수련을 포함해 모두 7가지의 맞춤형 체험을 운영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7가지 체험에 대해서는 각각 1인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무안군민이나



무안 연징산 자락에 치유센터·자연암 폭포(왼쪽)·소리치유원(오른쪽) 등이 들어선 125ha 규모 '물맛이 치유의 숲'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무안군 제공>



만 13세 미만 돌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은 할인율 50%가 적용된다.

무안군은 치유의 숲 개장을 기념해 오는 5월 말까지 무료 운영한다.

치유의 숲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물맛이 산림 치유 체험 신청은 홈페이지(www.muang.go.kr/chiyu) 등에서 할 수 있다.

무안군은 물맛이 치유의 숲 개장을 시작으로 무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신규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운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영산강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은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명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산강사업단, 영암지구 방조제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추진한 영암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이 2023년도 신규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된 방조제 외곽시설 및 배수갑문 설치 등의 개보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9억원이다.

영암방조제는 영산강유역 대단위종합개발사업

으로 1993년에 준공되었으며 주요 시설로 영암호, 영암-산이배수갑문, 통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방조제 축조로 조성된 영암호는 총저수량 2만 2400만㎥로 간척지 1만3160ha에 청정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원천으로 서남해안지역의 중요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다.

영암방조제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

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신규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운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은 "영산강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은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명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공공비축미 품종 '새청무·신동진' 매입 유예

영광군이 기존 공공비축미 품종인 새청무·신동진 매입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결정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청무·신동진'에서 '새청무·강대찬'으로 변경기로 했지만 해당 변경안이 다시 재조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 보급종인 강대찬 종자 공급은 중단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 때문에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을 내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하고 고품질쌀인 강대찬으로 대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역 농가의 신동진 재배면적이 넓고

오랜 기간 재배해온 점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신동진을 강대찬으로 교체하는 것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10a당·596kg)이지만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에 약해 재배 안정성이 떨어져 점차적으로 면적을 줄이고 2026년 이후부터 강대찬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새청무와 신동진 품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농가 쌀 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수 기자 jyilee@kwangju.co.kr